

# 국내 맥주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화 전략

정 철

Chul Cheong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Department of Convergence Industry, Seoul Venture University

세계 주류 시장은 약 2천조 원으로 추정되며(2009년 기준), 그 중 미국이 428조 원(21.4%)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이어서 영국이 230조 원, 프랑스가 190조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소비자 가격으로 약 22조 원 가량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주류 생산량은 연간 약 2억 2천만 톤이며(2009년 기준), 주류 생산량의 89%가 맥주와 와인의 저도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간

세계 주류 생산량 중 약 77%는 맥주이며, 보드카와 위스키 등 고도주를 포함한 기타 주류는 약 11% 정도를 차지한다(그림 1~2).

세계 맥주시장을 살펴보면 2011년 세계 맥주소비량은 약 18억 6400만 hl로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CRE, 칭다오), 필리핀(산미구엘), 일본(산토리) 아시아 지역 업체들의 판매량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세계 맥주시장 상위 15개 업체들의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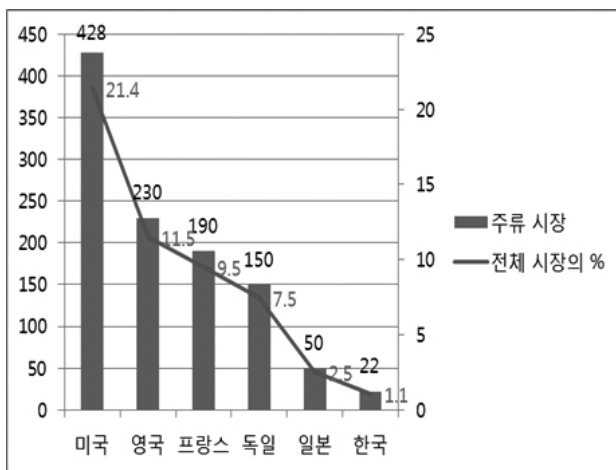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주류시장 매출액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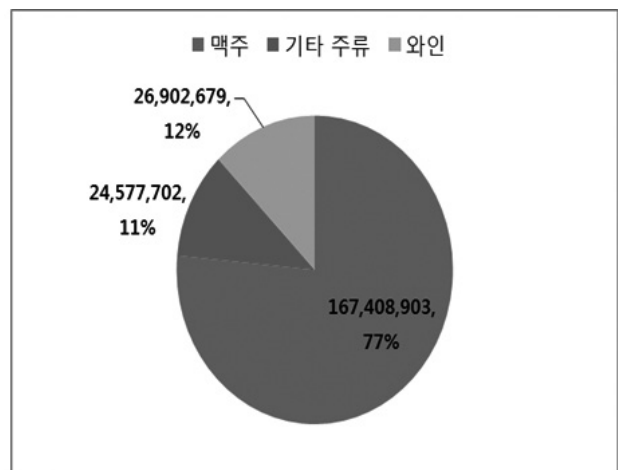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주류 생산량  
자료 : 중소기업청

Corresponding author: Chul Cheong  
Dept. of Convergence Industry, Seoul Venture University  
37-18, Gangnam-gu, Samsung-dong, Seoul, Korea  
Tel : +82-2-3470-5270  
Fax : +82-2-3470-5131  
E-mail : chulcheong@hotmail.com

표 1. 세계 상위 15개 맥주제조사('11년)

단위 : 백만 헥토리터

| 순위 | 회사명                        | 본사위치 | 판매량   |       |       | 증감(%)   |         |
|----|----------------------------|------|-------|-------|-------|---------|---------|
|    |                            |      | 2009  | 2010  | 2011  | '09-'10 | '10-'11 |
| 1  | Anheuser-Bush Inbev        | 벨기에  | 468.8 | 476.0 | 479.7 | 1.5     | 0.8     |
| 2  | SABmiller                  | 영국   | 223.0 | 227.6 | 229.2 | 2.1     | 0.7     |
| 3  | Heineken                   | 네덜란드 | 164.6 | 159.5 | 164.6 | -3.1    | 3.2     |
| 4  | Carlsberg Breweries        | 덴마크  | 116.0 | 114.2 | 118.7 | -1.6    | 3.9     |
| 5  | China Resources            | 중국   | 83.7  | 92.8  | 102.4 | 10.9    | 10.3    |
| 6  | Tingao Brewing             | 중국   | 59.7  | 63.5  | 71.5  | 6.4     | 12.6    |
| 7  | Molson Coors Brewing       | 미국   | 66.7  | 60.9  | 62.6  | -8.7    | 2.7     |
| 8  | Beilin Yangjing Beer Group | 중국   | 46.7  | 50.3  | 54.1  | 7.7     | 7.5     |
| 9  | Kirin Brewery              | 일본   | 53.0  | 51.8  | 50.7  | -2.3    | -2.1    |
| 10 | Asahi Brewery              | 일본   | 38.2  | 38.2  | 39.1  | 0.1     | 2.4     |
| 11 | Guinness Brewing           | 영국   | 22.4  | 22.9  | 23.8  | 2.2     | 3.9     |
| 12 | Eles Beverage Group        | 터키   | 22.1  | 24.2  | 23.0  | 9.5     | -5.0    |
| 13 | San Muguel Brewery         | 필리핀  | 16.0  | 15.6  | 17.2  | -2.3    | 10.0    |
| 14 | Suntory Ltd                | 일본   | 13.4  | 14.1  | 15.0  | 5.2     | 5.8     |
| 15 | Radeberger Group           | 독일   | 13.4  | 13.1  | 13.0  | 1.2     | 2.8     |

자료 : 한국주류산업협회

표 2. 세계 상위 15개 맥주제품('11년)

단위 : 백만 헥토리터

| 순위 | 제품명             | 회사명                  | 본사위치 | 판매량  |      |      | 증감(%)   |         |
|----|-----------------|----------------------|------|------|------|------|---------|---------|
|    |                 |                      |      | 2009 | 2010 | 2011 | '09-'10 | '10-'11 |
| 1  | Snow            | China Resources      | 중국   | 72.4 | 84.1 | 91.6 | 16.1    | 9.0     |
| 2  | Bud Light       | Anheuser-Busch Inbev | 미국   | 51.8 | 51.0 | 50.5 | -1.5    | -1.0    |
| 3  | Tsingtao        | Qingdao Brewing      | 중국   | 29.6 | 34.8 | 39.9 | 17.6    | 14.7    |
| 4  | Budweiser       | Anheuser-Busch Inbev | 미국   | 35.8 | 36.4 | 37.6 | 1.7     | 3.2     |
| 5  | Skoi            | Anheuser-Busch Inbev | 브라질  | 34.9 | 36.0 | 36.5 | 3.0     | 1.5     |
| 6  | Corona          | Anheuser-Busch Inbev | 멕시코  | 32.5 | 32.5 | 33.5 | 0.2     | 3.0     |
| 7  | Brahma          | Anheuser-Busch Inbev | 브라질  | 29.7 | 30.4 | 31.0 | 2.5     | 2.0     |
| 8  | Heineken        | Heineken             | 네덜란드 | 28.1 | 28.8 | 30.1 | 2.5     | 4.5     |
| 9  | Coors Light     | Molson Coors Brewing | 미국   | 25.0 | 25.0 | 25.5 | 0.0     | 2.0     |
| 10 | Yanjing         | Beilin Yanjing Group | 중국   | 21.4 | 23.5 | 25.2 | 9.5     | 7.5     |
| 11 | Harbin          | Anheuser-Busch Inbev | 중국   | 19.3 | 19.9 | 21.1 | 3.0     | 6.0     |
| 12 | Miller Lite     | SABmiller            | 미국   | 20.7 | 19.9 | 19.3 | -3.5    | -3.0    |
| 13 | Baltika         | Carlsberg Brewery    | 러시아  | 17.8 | 17.1 | 16.5 | -4.0    | -3.5    |
| 14 | Asahi Super Dry | Asahu Brewery        | 일본   | 15.3 | 14.7 | 14.2 | -3.7    | 4.0     |
| 15 | Sedrin          | Anheuser-Busch Inbev | 중국   | 13.1 | 13.5 | 14.0 | 3.0     | 4.1     |

자료 : 한국주류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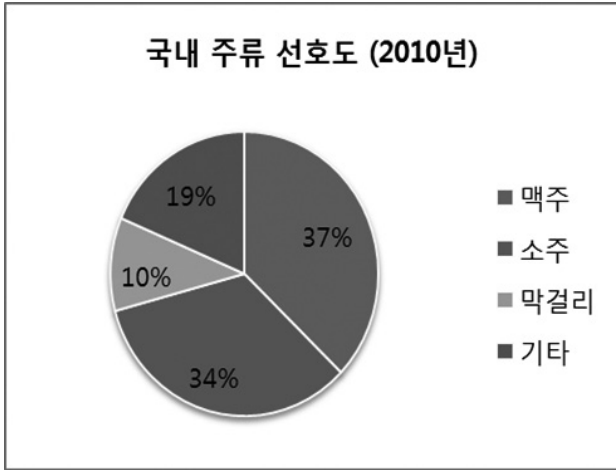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주류선호도  
자료 : 트렌드모니터

주 판매량이 전체 80.6% 차지하며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AB인베브는 2011년 기준 4억 7970만 hl로서 세계맥주시장의 26% 차지상위 15개 맥주 제품중 7개 (Bud light, Budweiser, Skol, Corona, Brahma, Harbin, Sedrin)를 차지하였다. 제품별로는 중국 스노우(설화)가 9,160만 hl 판매되었고 중국내에서 대부분 소비되었으며 중국이 4억 9010만 hl로 1위, 그 다음 미국, 브라질, 러시아,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 2위 소비국가이며 맥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상위 맥주 소비국 중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전통적인 맥주 소비국가들의 소비가 감소한 반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 맥주소비국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표 1~2).

한편 국내 주류산업은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결과 원료조달, 제조 생산, 수입,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규제가 과도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주류 분야를 고부가가치의 식품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주류 소비는 세계적인 수준이면서도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일부 주종을 제외하고 기술력·인력 등 핵심인프라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주류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식품산업으로 인식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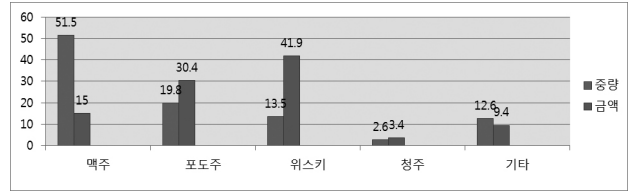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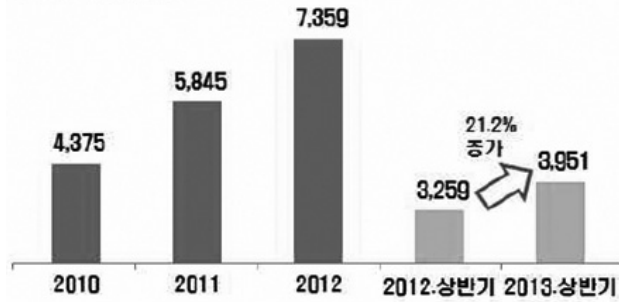
그림 4. 수입주류 수입량 및 주종별 점유율(2012년)  
자료 : 관세청

되어 세계 20대 식품기업 가운데 주류기업이 5개사 (AB인베브(벨기에), 기린(일본), SAB밀러(남아프리카공화국), 아사히(일본), 칼스버그(덴마크))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주류시장의 환경변화를 보면 주류 면허 및 시장 개방화 가속되는 추세이고 주류산업의 규제 단계적 완화되고 있으며 FTA에 따른 수입주류 다변화 및 가격저하에 따른 수입주류의 유입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저도주 소비추세와 다양한 주류에 대한 욕구 증가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소비가 가정에서의 음주증가로 소비패턴 변화하고 주폭 문제, 공공장소 음주규제 등 각종 규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인은 가장 선호하는 술로는 맥주(37%)를 선택했고 근소한 차이로 소주(34%)를 선택하였고 맥주 선호도는 2009년(30.5%), 2010년(34%)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소주 선호도는 2009년(42.8%), 2010년(36.2%)에 이어 계속 줄어들어 2011년 처음으로 맥주가 소주를 앞서고 있다. 기타로 분류되는 19%는 대부분은 위스키 등 증류수입을 감안하면, 한국인의 고도주 음용 비율은 맥주와 막걸리로 대표되는 저도주 대비 1.13배 이상 높은 편이다(그림 3).

국내 주류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주류수입량은 145,012톤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 하였고 수입액은 4억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4.5% 증가하였으며 수입주류 점유율은 중량기준으로는 맥주가 51.5%, 포도주 19.85, 위스키 13.5%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위스키 41.9%, 포도주 30.4%, 맥주 15% 순이며 FTA 발효 이후 수입맥주의 관세가 해마다 낮아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적고 수입국과 수입되는 맥주의 품목의 다양성과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 수입액(만\$)



### 연도별 상반기 수입규모 & 수입대상국수



그림 5. 최근 3년간 맥주 수입 현황

자료 : 관세청

표 3. 국내 주류산업의 경제적가치

| 산업별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소계               | 819  | 8,076 | 792  | 8,432 | 796  | 8,565 | 809  | 8,685 |
| 발효주 제조업          | 744  | 4,894 | 724  | 5,043 | 731  | 5,427 | 742  | 5,563 |
| 증류주 및<br>합성주 제조업 | 75   | 3,182 | 68   | 3,389 | 65   | 3,138 | 67   | 3,122 |

| 사업체구분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
|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주류 도매업        | 2,215   | 24,900    | 2,173   | 24,397    | 2,239   | 25,967    | 2,265   | 25,803    |
| 음료 전문 소매업     | 1,645   | 3,218     | 1,665   | 3,388     | 1,467   | 2,813     | 1,697   | 3,515     |
| 휴양업           | 776     | 48,567    | 777     | 47,311    | 794     | 51,818    | 815     | 52,294    |
| 주점 및 음식<br>점업 | 551,368 | 1,510,507 | 550,711 | 1,517,281 | 552,737 | 1,534,035 | 555,496 | 1,533,927 |

자료 : 통계청 KOSIS(2012년)

쉽게 구입 가능하여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

2013년 상반기 맥주수입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수입맥주시장 최근 3년간 68% 확대되고 연평균 30% 고성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최대 맥주 수입대상국은 일본으로 전체의 수입맥주의 1/3을 차지하였고 수입 상위 5개국을 일본·네덜란드·독일·중국·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맥주 수입은 봄·여름에 집중되는 계절성을 지니고 있고 최근 3년간 맥주 수입시장은 2010년 4,375만 불

에서 2012년 7,359만 불로 약 68%성장하였으며,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중이다. 수입대상국가수도 2010년 상반기 34개국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3개국으로 9개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5).

한편 주류시장은 각국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으로 미국의 경우 맥주 업계에 178만 명 종사자와 이들에게 US\$ 540억의 임금 및 복지혜택이 주어진다. 증류주 업계에는 667,141명의 직접적 직업 창출 효과 및 579,031명의 간접고용 효과로 이어진다. EU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총 300만 명의 고용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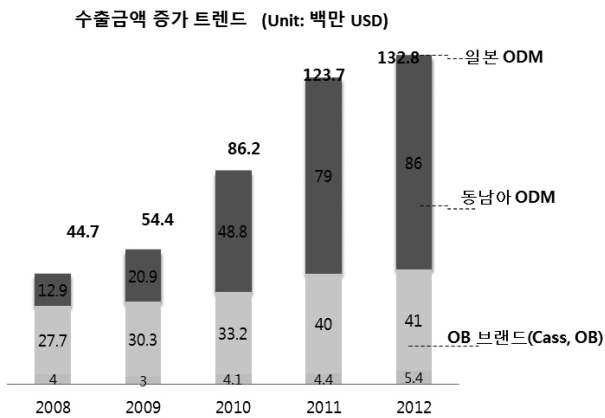


그림 6. 맥주수출 현황

출효과(EU 총 고용인구의 1%)가 나타나고 있으며 맥주 업계에는 약 200만 명이 맥주 생산과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증류주업계에는 50,000명의 직접적 고용 창출 효과 및 간접 고용효과로 25만 명(전체 도매업 중 7%, 소매업 중 18% 주류와 연관), 기타 간접 직업 창출로 광고업 3,000명, 포장 38,000명, 자본설비 15,000명, 14만7천여 명이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 효과로는 미국의 경우 연간 주세는 연간 US\$ 6,028,119로 미국 전체 세입의 0.47% 차지하며 그중 맥주 시장에서 연간 US\$ 300억

의 주세 효과를 보고 있다. EU의 경우 연간 주세는 EU 전체 세입의 0.8% 차지하며, EU 맥주 시장 연간 €380억 주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주류 산업도 그간 우리 경제 기초를 세우는데 공헌했으며 현재에도 국가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전체 연간 고용인구의 7.3%인 약 162만명이 주류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내 연간 세입 190조 원의 1.26%인 2조4천억 원이 주세(2011년 기준)이다. 국내 생산 수출 주류는 연 평균 US\$ 19,506,300, 연간 수출의 0.0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창출 효과 국내주류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약 162만명(주류 제조 및 판매)으로 추산된다(표 3).

국내 전체 주세 2조 4천억 원 중에 맥주주세가 55.5% 차지하며 50~70년대 무렵의 후진적 산업환경 속에서 주류산업의 조세수입은 우리 경제의 기초를 세우는데 공헌하였다. 1966년 당시 국내 전체 세입의 약 1/10을 주세가 차지하였고 80년대에도 내국세의 8.1%를 주세가 담당했었다(표 4).

2012년 맥주수출량은 전년 대비 5.2% 성장하였고 3개년 누적성장률은 43.1%이며, 수출은 17.4% 증가하였으며, 2009년 이후 계속하여 10%이상 고속 성장중이다. 2011년 7월 ~ 2012년 6월 1억불 초과 달성하여 2012년 11월 무역의 날 1억불 수출의 탑 수상하기도 하

표 4. 국내 주류산업의 주세납부 현황

| 구분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
| 맥주     | 1,351,307 | 1,284,743 | 1,261,013 | 1,216,788 | 1,202,732 | 1,120,324 | 1,127,717 | 1,241,886 | 1,364,255 | 1,338,033 |
| 희석식 소주 | 1,011,666 | 968,359   | 969,171   | 962,525   | 969,921   | 906,413   | 861,304   | 816,384   | 790,247   | 715,091   |
| 위스키    | 27,431    | 39,592    | 59,847    | 70,962    | 112,329   | 176,874   | 162,184   | 166,302   | 155,002   | 176,081   |
| 청주     | 20,950    | 21,758    | 20,728    | 20,279    | 19,853    | 20,244    | 20,789    | 22,173    | 20,758    | 22,249    |
| 과실주    | 17,334    | 22,126    | 23,570    | 22,847    | 25,371    | 23,207    | 19,215    | 15,362    | 11,902    | 9,781     |
| 기타주류   | 1,115     | 1,014     | 85        | 789       | 711       | 764       | 664       | 601       | 557       | 513       |
| 일반 증류주 | 901       | 676       | 597       | 502       | 546       | 466       | 406       | 416       | 545       | 812       |
| 증류식 소주 | 464       | 613       | 978       | 618       | 696       | 459       | 148       | 107       | 268       | 172       |
| 리큐르    | 201       | 237       | 753       | 1,151     | 2,049     | 2,849     | 4,378     | 7,238     | 15,166    | 25,939    |
| 브랜드    | 8         | 5         | 94        | 0         | 0         | 0         | 0         | 0         | 0         | 0         |
| 합계     | 2,431,417 | 2,339,122 | 2,337,604 | 2,296,460 | 2,334,210 | 2,251,599 | 2,196,803 | 2,270,468 | 2,358,700 | 2,289,480 |

자료 : 국세청

표 5. 독일의 주종별 주세율

| 구분             | 내용  |
|----------------|---|
| 맥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맥아로부터 생산된 맥주 및 음료와 맥주를 블랜딩한 강화맥주에 과세</li> <li>• 1plato 당 0.79 EUR/hl 로 알코올 함량은 고려하지 않음</li> <li>• 연간생산량은 200,000 hl 이하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 hl당 상기 세율에 다음의 퍼센트를 적용한 세율로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생산량이 40,000 hl 인 경우 세율의 75%</li> <li>- 연간생산량이 20,000 hl 인 경우 세율의 70%</li> <li>- 연간생산량이 10,000 hl 인 경우 세율의 60%</li> <li>- 연간생산량이 5,000 hl 인 경우 세율의 50%</li> </ul> </li> </ul> |
| 포도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율</li> </ul>   |
| 발포성포도주 및 강화포도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포성포도주 6%부터 136 EUR/hl</li> <li>• 발포성포도주 6%이하 51 EUR/hl</li> <li>• 강화포도주 15%이상 153 EUR/hl</li> <li>• 강화포도주 15%이하 102 EUR/hl</li> </ul>   |
| 증류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03 EUR/hl 순수 알코올(일반증류장)</li> <li>• 1,022 EUR/hl 순수 알코올(변제증류장 및 원료소유농민)</li> <li>• 730 EUR/hl 순수 알코올(자가증류장이면서 연간 생산량이 4 hl이하인 경우)</li> </ul>   |

자료 : 독일 관세청

표 6. OECD 맥주세율

| 국가    | 100 리터 · 당분 1도당<br>(per degree plato)<br>종량세율 |      | 100 리터 · 알코올 1도당<br>(per degree alc.)<br>종량세율 |       | VAT<br>세율(%) | 알코올 2.8% 이하에 대한<br>100 리터당 종량세율 |      |
|-------|---|------|---|-------|--------------|---------------------------------|------|
|       | 각국화폐  | USD  | 각국화폐  | USD   |              | 각국화폐                            | USD  |
| 오스트리아 | 2.00  | 2.29 |   |       | 20.0         |                                 |      |
| 벨기에   | 1.71  | 1.91 |   |       | 21.0         |                                 |      |
| 체코    | 24.00   | 1.68 |   |       | 19.0         |                                 |      |
| 덴마크   |   |      | 50.90   | 5.93  | 25.0         |                                 |      |
| 핀란드   |   |      | 19.43   | 20.07 | 22.0         | 1.68                            | 1.73 |
| 프랑스   |   |      | 2.60  | 2.85  | 19.6         | 1.30                            | 1.42 |
| 독일    | 0.79  | 0.89 |   |       | 19.0         |                                 |      |
| 이탈리아  | 2.35  | 2.71 |   |       | 20.0         |                                 |      |
| 한국    | 증가세율(주세 72%에 교육세 30% 추가)                      |      |   |       | 10.0         |                                 |      |
| 일본    | 종량세율(100 리터당 22,000엔)                         |      |   |       | 5.0          | 맥이량에 따라 차등과세                    |      |
| 터키    |   |      | 23.80   | 26.42 | 18.0         |                                 |      |
| 영국    |   |      | 12.59   | 19.31 | 17.5         |                                 |      |
| 미국    |   |      | 21.00   | 21.00 | -            |                                 |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07년)

였다. 전년대비 7.4% 매출액 성장(3개년 누적 +54%)하여 수익성 동반한 견실한 성장 유지되고 있다(그림 6).

국내 주류 면허제도로 인해 1차 도매업 수의 변화

폭은 크지 않으나, 2차 소매 업소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2차 도,소매업 모두 지속적으로 매출액도 동반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호



표 7. 국내 주종별 주세율

| 과세기준 | 주류명            | 주세율(%)     | 교육세율(%) | 비고  |
|------|----------------|------------|---------|---|
| 발효주  | 맥 주            | 72         | 30      | • 전통주 경감세율 적용 출고수량 기준 500kl 이하 제조자에 한해 200 kl까지 50% 경감  |
|      | 약 주            | 30         | -       |   |
|      | 청 주            | 30         | 10      |   |
|      | 과실주            | 30         | 10      |   |
|      | 탁 주            | 5          | -       |   |
| 증류주  | 소 주            | 72         | 30      | • 전통주 경감세율 적용 출고수량 기준 250 kl 이하 제조자에 한해 100 kl까지 50% 경감 |
|      | 위스키            | 72         | 30      |   |
|      | 브랜디            | 72         | 30      |   |
|      | 일반증류주          | 72         | 30      |   |
|      | 리큐르            | 72         | 30      |   |
| 기타주류 | 분말상태 주류혼합      | 72         | 30      |   |
|      | 발효방법으로 발효주류 이외 | 30         | 10      |   |
|      | 불휘발분 30도이상     | 10         | 10      |   |
| 종량세  | 주정             | 57,000원/kl | 30      | 드림당 주세 11,400원  |

자료 : 국세청

프집 업소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치킨 집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활성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류산업이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주세는 증가세(주정은 종량세)로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가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도 종량세를 기반으로 고도주에는 고세율, 저도주에는 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고도주의 소비를 줄이고 저도주의 소비를 촉진시켜 소비자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저도주인 맥주에는 낮은 주세를 부과하며, 고도주인 강화와인 및 증류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농가의 소득보전 및 농산물 소비차원에서 포도주의 경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 처럼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세가 부과되는 맥주, 발포성와인 및 증류주의 경우 연간 생산량에 따라 차등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생산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표 5).

OECD의 맥주세율을 살펴보면 종량세를 바탕으로

알코올 또는 당분을 기준하여 100리터당 맥주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맥주에도 증가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주세에 교육세를 별도 부과하여 OECD 국가에 비해 맥주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또한 맥주의 경우 발효주이면서 저도주 임에도 불구하고 소주와 같이 고도주에 부과되는 72%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고 타 주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저도주 시장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표 7).

국내 주류산업은 식품산업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맥주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며 FTA 시대를 맞아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주류산업 제도 정비를 통한 선진국형 주류산업 제도 정착 및 맥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맥주산업의 6차 산업화 실현 ▲국내 맥주의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육성책 마련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산업체 차원에서는 ▲수입주류에

대응하고 국내외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신제품 개발 노력 ▲기술 및 경영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학술▲연구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계차원에서는 ▲산학연 공동 양조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맥

주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한 첨단양조기술 및 R&D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국산 양조보리 재배 기술 향상과 쌀과 맥아를 활용한 맥주 제품 개발 등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질 시기로 판단된다.